

# 이중대격에 대한 자율모듈적 분석

## An Autonomous Modular Account of Double Accusatives

김경환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Kyunghwan Kim(kkim@kyonggi.ac.kr)

### 요약

본 논문은 문장의 통사구조, 의미구조, 형태구조 등을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모듈로 보는 자율 어휘문법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이중대격에 대한 다모듈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중심주의적 이론들과 달리 본 논문은 이중대격 구문의 기능-논항구조와 더불어 역할구조와 정보구조를 통해 이중대격에 대한 의미론적 특성을 분석한다. 기능-논항구조에서 이중대격의 첫 번째 대격은 관계명사의 논항인 소유격과는 달리 술어의 논항이 되며, 역할구조에서는 수동자의 역할을 취하게 되어 그 결과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이중대격 구문에서 두 번째 대격인 소유대상은 정보구조에서 초점영역이 된다. 즉, 이중대격의 사용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소유자를 수동자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논항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소유대상을 초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대격의 의미론적 특성을 자율 어휘문법의 기능-논항구조, 역할구조, 정보구조 등 세 개의 다차원적인 구조로 나타내므로 해서 이중대격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 중심어 : | 자율어휘문법 | 이중대격 | 기능-논항구조 | 역할구조 | 정보구조 | 초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multi-modular account of double acc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in the framework of Autolexical Grammar. The grammar views syntactic, semantic, and morphological structures of sentences as modules which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Unlike syntactocentric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accusatives through function-argument (F/A) structure along with roles structure (RS) and information structure (IS). In F/A structure of double accusatives, the first accusative becomes an argument of a predicate, unlike the possessive, which is an argument of a relational noun. Furthermore, the first accusative of double accusatives takes the role of patient in RS, which allows it to become the subject of a passive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accusative, which is originally the possessee, becomes a focal area in IS. Therefore, the purpose of double accusatives is twofold: one is to turn the possessor into an independent argument of a predicate which takes patient role, and the other is to turn the possessee into a focus. Such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accusatives can be expressed by means of multi-dimensional structures of F/A structure, RS, and IS of Autolexical Grammar, which allows an integrated account of the phenomenon.

■ keyword : | Autolexical Grammar | Double Accusatives | Function-Argument Structure | Role Structure | Information Structure | Focus |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22년 07월 11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25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9월 13일  
교신저자 : 김경환, e-mail : kkim@kyonggi.ac.kr

### I. 서론

대격(accusative case)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장에 사용된 동사와 그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격과는 달리 대격은 문법적 관계 외에 다양한 언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 영어의 여격교체(dative alternation)를 보면 여격에 해당되는 (1a)의 *to Mary*가 (1b)에서는 전치사 없이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여 대격을 부여 받게 된다. 두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두 문장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a. John gave a present to Mary.
- b. John gave Mary a present.

대격이 동사-목적어 간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아래와 같은 처격교체(locative alternation)이다.

- (2) a. John loaded the furniture onto the van.
- b. John loaded the van with the furniture.

(2a)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onto*의 목적어인 *the van*이 (2b)에서는 동사 바로 뒤에서 대격을 부여 받게 된다. (1)의 예문들처럼 (2)의 예문들 간에도 진리치에는 차이가 없으나 두 문장이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

이처럼 대격이 아닌 다른 격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아예 격이 부여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1-6]. 이 논문은 한국어에서 이중대격이 가능한 다양한 구문들 중에서도 소유격이 대격으로 치환된 이중대격 구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겠다. 특히, 위의 영어의 여격대체 문장에 대한 의미 분석에도 적용되는 [7][8]등의 자율어휘문법(Autolexical Grammar)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이중대격 구문에 대한 기능-논항구조, 역할구조, 정보구조 등을 제시하여 이중대격 구문을 다차원적 구조로 분석하겠다.

### II. 자율어휘문법

통사중심주의적 이론들과는 달리 자율어휘문법은 문장의 통사구조뿐만 아니라 단어의 형태구조부터 의미구조까지 각각의 모듈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생성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그린랜드 에스키모어(West Greenlandic Eskimo) 문장인 *Hansi illoqarpoq*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Hans has a house*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나뉘며, 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9].

- (3) Hansi-∅ illu-qar-poq.
- Hans-ABS house-have -INDIC/3S
- 'Hans has a house.'

위의 예문에 사용된 두 개의 단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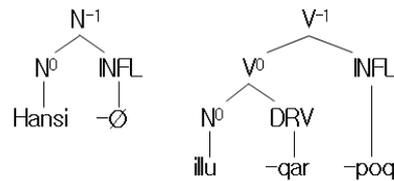


그림 1. 형태구조

위의 구조에서 *Hansi*는 명사 어간(N<sup>0</sup>)으로 기본형인 절대격(absolutive case)으로 어미 없이(또는, ∅와 결합하여) 완전한 명사(N<sup>-1</sup>)가 된다. 하나의 단어인 *illoqarpoq*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동사로, 파생어미인 *-qar* 'have'가 명사 어간(N<sup>0</sup>) *illu* 'house'와 결합하여 동사 어간(V<sup>0</sup>)을 형성한 후 주어의 인칭과 수(3인칭 단수) 그리고 직설법을 나타내는 활용어미인 *-poq*와 결합하여 완전한 동사(V<sup>-1</sup>)가 된다.

자율어휘문법에서는 위와 같이 단어의 형태구조와 동시에 아래와 같이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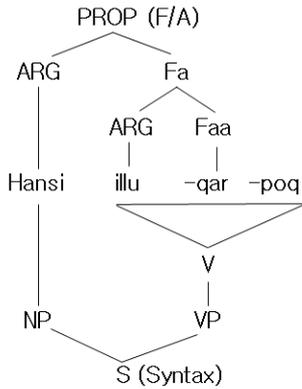


그림 2. 기능-논항구조 및 통사구조

[그림 2]에서 상단의 구조는 문장의 의미구조를 나타내는 기능-논항구조(function-argument structure, F/A)이며 하단의 구조가 문장의 통사구조이다. 통사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illoqarpoq*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서 [그림 1]에서 본 형태소 분석과는 달리 통사구조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동사로 분석된다. 반면, 기능-논항구조(F/A)에서는 *-qar* ‘have’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술어(Faa 즉, two-place predicate)로 *illu* ‘house’를 논항(ARG)으로 취한 후 한 개의 논항을 취하는 술어(Fa 즉, one-place predicate)가 되고, 최종적으로 *Hansi*를 논항(ARG)으로 취하여 완전히 포화(fully saturated)상태가 된 하나의 명제(proposition, PROP)가 된다. 결국 (3)의 문장에서 *-qar* ‘have’라는 술어의 목적어와 주어가 각각 *illu* ‘house’와 *Hansi*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통사구조가 아니라 기능-논항구조인 것이다. 활용어미인 *-poq*는 기능-논항 관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기능-논항구조에서 분석대상이 되지 않고, 통사구조에서도 단어의 일부이므로 통사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며, [그림 1]에서처럼 활용어미로 형태소 분석만 이루어진다.

위에서 제시한 자율어휘문법을 사용한 서그린랜드 에스키모어 분석의 경우 문장에 사용된 요소들이 형태소나 단어로써 또는 기능어와 논항으로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분석됨으로 인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형태구조, 기능-논항구조, 통사구조 외에도 자율어휘문법에는 문장에 대한 의미 분석을 위한 역할구조(role structure)가 있으며 이중대격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다.

앞서 제시한 기능-논항구조는 문장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기능과 논항의 결합관계를 나타내나, 문장과 실제 세계의 관계(진리치, 함의, 동의성 등)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능동문과 수동문의 의미의 유사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는 통사론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자율어휘문법에서 능동문과 수동문은 아래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각각 상이한 통사구조와 기능-논항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능동문과 수동문의 의미의 유사성은 통사구조나 기능-논항구조로 설명되지 않는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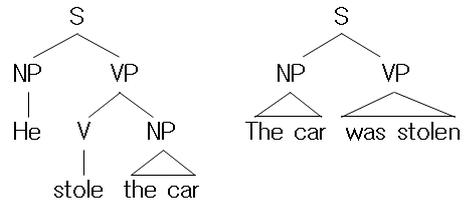


그림 3. 능동문과 수동문의 통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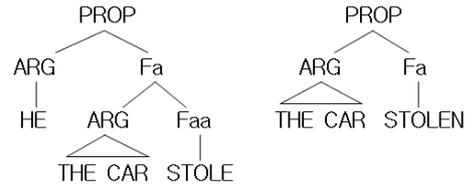


그림 4. 능동문과 수동문의 기능-논항구조

반면에 능동문과 수동문의 의미상의 유사성은 아래와 같이 자율어휘문법의 역할구조(role structure, RS)에서 나타낸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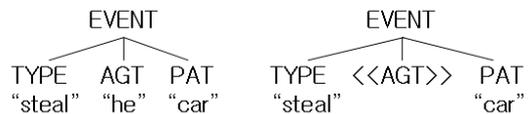


그림 5. 능동문과 수동문의 역할구조

즉, [그림 5]에서 능동문과 수동문 각각의 역할구조에서 이벤트 타입(EVENT TYPE 즉, “steal”)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수동자(patient 즉, “car”)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역할구조에서 다른 점은 능동문에는

동작주(AGT)가 명시되어 있으나 수동문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8]의 역할구조는 이벤트 타입과 참여자의 의미역할(semantic roles)을 명시한다. [8]의 역할구조를 발전시켜 [10]은 [11]의 두 개의 층으로 나눈 역할(two-tiered roles)을 적용하여 의미역할을 주제층(thematic tier)과 행동층(action tier)로 나누었다. 주제층에는 원천(source), 목표(goal), 주제(theme)와 장소(locative)를 포함시켰으며, 행동층에는 동작주(agent)와 수동자(patient)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의미역할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눔으로써 여격교체에 해당하는 아래의 문장들이 나타내는 공통점은 물론 두 문장의 차이를 역할구조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10].

- (4) a. John gave a book to Mary.
- b. John gave Mary 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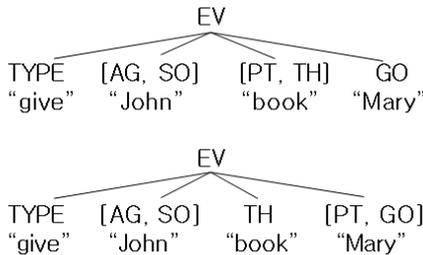


그림 6. (4a) 및 (4b)의 역할구조

(4a)와 (4b)의 예문에 사용된 *John*, *a book*, *Mary*는 주제층(thematic tier)에서 각각 원천(SO), 주제(TH), 목표(GO)의 의미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두 문장은 의미상 유사하다. 또한, (4a)와 (4b)에서 *John*은 행동층(action tier)에서 동일하게 동작주(AG)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a book*과 *Mary* 중 어느 참여자가 행동층에서 수동자(PT)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4a)처럼 *a book*이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할 경우 행동층에서 PT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동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존재(affected entity)로 표현되는 것이다. 반면 (4b)의 경우 *Mary*가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여 PT의 역할을 부여 받는다. 즉, (4a)는 *John*의

행동으로 인해 *a book*이 영향을 받은 대상을 뜻하는 반면에 (4b)는 *Mary*가 영향을 받은 대상을 뜻하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두 문장의 의미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율어휘문법의 역할구조를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III. 이중대격의 자율모듈적 의미 분석

한국어에서 이중대격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이 목적어의 소유자가 소유격 대신에 대격으로 대체되는 구문이다[12].

- (5) a. 참다못한 지은이가 영수의 다리를 걷어찼다.
- b. 참다못한 지은이가 영수를 다리를 걷어찼다.

(5a)처럼 소유격을 사용하여 소유자와 소유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내적소유(internal possession)라고 하는 반면에, (5b)처럼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외적소유(external possession)라고도 한다. 이 경우 소유격 대신에 대격이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이중대격이 된다.

내적소유와 외적소유 구문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통사이론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에서는 외적소유를 소유자 인상(possessor raising)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으며, 지배와 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에서는 외적소유를 예외적 격부여(Exceptional Case Marking)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병합(incorporation)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에서는 외적소유를 소유자 상승(possessor ascension)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어떤 조건에서 외적소유를 통한 이중대격이 가능한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3]은 소유자가 영향을 받은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소유격 대신에 대격을 취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대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6) a. 존이 메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b. \*존이 메리를 목소리를 들었다.  
 (7) a. 존이 메리의 다리를 보았다.  
 b. \*존이 메리를 다리를 보았다.

[13]에 의하면 위의 문장에서 ‘듣다’, ‘보다’ 등의 동사는 ‘목소리’와 ‘다리’의 소유자인 ‘메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소유자를 대격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한 아래 문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8) a. 존이 메리의 얼굴을 그렸다.  
 b. 존이 메리를 얼굴을 그렸다.  
 (9) a. 존이 몰래 메리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b. 존이 몰래 메리를 얼굴을 노려보았다.

(8b)나 (9b)에서 ‘얼굴’의 소유자는 ‘그리다’나 ‘노려보다’라는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대격으로 치환 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6)~(7)에 사용된 동사와 (8)~(9)에 사용된 동사의 의도성(intentionality)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동사라도 주어의 의도성이 강한 동사의 경우 소유자를 대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둘째, 이중대격 구문에서 두 번째 대격 즉, 소유대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는 소유자의 소유격이 대격으로 치환됨으로 인해 소유대상은 부사형 수식어 명사구(“adverb-type modifier NP”)로 변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1)과 같이 소유대상은 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중대격 구문에서는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12)와 같이 대격으로 치환된 소유자가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 (10) 존이 메리의 손을 잡았다.  
 (11) a. 존이 메리를 [손]을 잡았다.  
 b. \*[손]이 존에게 메리를 잡혔다.  
 (12) a. 존이 [메리]를 손을 잡았다.  
 b. [메리]가 존에게 손을 잡혔다.

이중대격 구문에서 소유대상인 두 번째 대격이 수식어구의 기능을 한다는 [14]의 주장은 한 문장에서 여러 부가어가 사용될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이 다중대격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입증되는 듯 보인다.

- (13) 존이 나무를 가지를 끝을 잘랐다.

또한, [14]는 소유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0)의 ‘잡다’와 같은 동사도 (14b)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대격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그 이유는 이중대격 구문에서 ‘손’이 부사와 같은 수식어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예쁜’과 같은 형용사에 의해 수식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14) a. 존이 메리의 예쁜 손을 잡았다.  
 b. \*?존이 메리를 예쁜 손을 잡았다.

그러나 [14]의 주장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예쁜’을 ‘다친’으로 대체할 경우 이중대격이 비교적 가능하다.

- (15) a. 존이 메리의 다친 손을 치료했다.  
 b. 존이 메리를 다친 손을 치료했다.

(15b)가 가능한 반면에 (14b)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중대격 구문에서 소유대상인 두 번째 대격의 또 다른 특성인 초점(focus)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5]에 의하면 아래 문장에서 *sharp teeth*와 *tail*은 각각 *dog*와 *cat*의 활성영역(active zone)이라고 하며, 활성영역이란 “portions of a trajector or landmark that participate directly in a given relation”으로 아래 문장에서 *dog*와 *cat*이 각각 “trajector”와 “landmark”에 해당된다.

- (16) a. Your dog bit my cat.  
 b. Your dog bit my cat on the tail with its sharp teeth.

[15]의 활성영역은 이중대격의 두 번째 대격과 공통

점을 갖는다. 즉, 이중대격에서 두 번째 대격과 위의 예문에서 “landmark”의 활성화영역에 해당하는 *on the tail*은 생략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으며, 이중대격에서 두 번째 대격이 첫 번째 대격인 의미상의 소유자의 일부이거나 소유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도 “landmark”와 활성화영역의 관계와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이중대격 구문의 두 번째 대격과 활성화영역의 최대 공통점은 그 사용 목적이 문장이 묘사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초점영역(focal area)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5b)의 이중대격이 가능한 반면에 (14b)의 이중대격이 불가능한 이유는 [14]의 주장처럼 ‘손’이 부사와 같은 수식어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예쁜’과 같은 형용사에 의해 수식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의 문맥에서 ‘예쁜 손’과 ‘다친 손’ 중 이중대격 구문에서 후자만 초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5b)에서 ‘다친 손’은 다치지 않은 손과 대비될 수 있으므로 초점이 될 수 있으나, (14b)에서 ‘예쁜 손’은 예쁘지 않은 손과 대비되기 어려우므로 초점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대격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예쁜 손’과 ‘다친 손’이 각각 대비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초점이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초점이 될 수 있는 경우 이중대격 구문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격을 대격으로 치환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기능-논항구조상 논항의 일부였던 소유자를 독립된 논항으로 만들고 둘째, 역할구조상 소유자를 수동자(PT)로 만들고 셋째, 이중대격에서 두 번째 대격인 소유대상을 초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초점이라는 개념은 기능-논항구조나 역할구조와는 또 다른 영역의 개념으로 기능-논항구조나 역할구조에서 다루지 않고, [10]에서 제안하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IS)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정보구조는 담화 내에서 주어진 정보 또는 새로운 정보의 차이를 통해 문장의 화제(topic)와 초점(focus)을 구분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중대격에서 두 번째 대격이 초점의 역할을 하므로 이 특성을 정보구조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아래 다시 제시한 (5)의 문장에서 소유격이 대격으로 바뀜으로써 (17b)의 두 번째 대격인 ‘다리’는 첫 번째 대격인 ‘영수’의 초점영역이 된다. 반면에 ‘영수’는 초

점의 모체(matrix)가 된다.

- (17) a. 참다못한 지은이가 영수의 다리를 걷어찼다.
- b. 참다못한 지은이가
- [[MAT 영수] [FOC 다리]] 걷어찼다.

#### IV. 이중대격의 다차원적 구조

(17a)의 소유격을 사용한 구문과 (17b)의 이중대격 구문의 차이를 각 모듈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격을 사용한 (17a)의 기능-논항구조는 [16]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유대상인 ‘다리’를 관계명사(ARGa)로 보고 소유격으로 표현된 ‘영수’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관계명사가 사용되면 관계명사의 소유자는 전제된 대상이므로 소유자는 관계명사가 취하는 논항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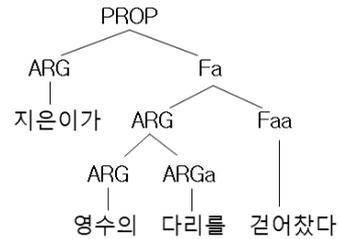


그림 7. 소유격 구문 (17a)의 기능-논항구조

반면에 이중대격을 사용한 (17b)의 기능-논항구조는 아래와 같다. 아래 [그림 8]의 구조에서 ‘다리’는 역시 관계명사(ARGa2)로서 또 다른 논항을 취해야 하지만 소유자에 해당되는 논항이 공백[ARGi ∅]이므로 ARGa1로 남게 된다. Faa2는 ARGa1을 논항으로 취하지만 그 결과 여전히 두 개의 논항이 부족한 상태(Faa1)로 남게 된다. 그러나 대격으로 표현되는 의미상의 소유자인 ‘영수’가 Faa1과 결합하여 Fa가 되며, 최종적으로 주어진 ‘지은이가’ Fa와 결합하여 명제(PRO)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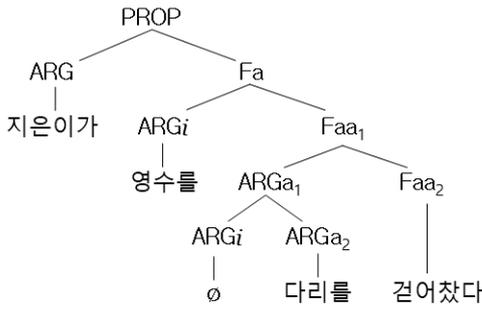


그림 8. 이중대격 구문 (17b)의 기능-논항구조

소유격이 사용된 된 (17a)의 역할구조는 아래와 같이 '영수의 다리' 전체가 행동층과 주체층에서 각각 수동자 (PT)와 주체(TH)의 역할을 한다.



그림 9. 소유격 구문 (17a)의 역할구조

반면에 (11)과 (12)에서 보았듯이 이중대격에서 '영수'만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역할구조로 설명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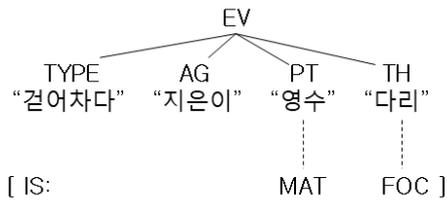


그림 10. 이중대격 구문 (17b)의 역할구조 및 정보구조

위의 이중대격 구문의 역할구조에서 대격인 '영수'는 수동자(PT) 즉, 영향을 받은 대상이므로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PT가 아닌 '다리'는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위의 이중대격 구문의 정보구조(IS)에서는 '다리'가 초점이며 이에 대해 '영수'가 모체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중대격을 정보구조에서 모체와 초점의 관계로 분석하는 방식은 이중대격 뿐만 아니라 삼중대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이 나무의 가지를

의 끝을 잘랐다.'는 아래와 같이 이중대격 및 삼중대격이 가능하다.

- (18) a. 존이 나무의 가지를 끝을 잘랐다.
- b. 존이 나무를 가지를 끝을 잘랐다.

(18a)에서는 '나무의 가지'가 모체이며 '끝'이 초점이 된다. (18b)의 경우 '나무'와 '가지'가 각각 모체와 초점 이면서 '가지'는 또 다른 초점인 '끝'의 모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18b)의 삼중대격은 모체와 초점의 관계가 상대 적일 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정보((18b)의 '가지')가 한 모체의 초점이면서 또 다른 초점의 모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 문장의 대격 부분의 정보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9) a. [MAT 나무의 가지를] [FOC 끝을]
- b. [MAT 나무를] [FOC/MAT 가지를] [FOC 끝을]

## V. 결론

소유격을 사용한 구문과 이중대격 구문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기능-논항구조에서 관계명사가 바로 소유자를 논항으로 취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소유자가 공백 이어서 관계명사가 소유자를 논항으로 취하지 않고 술어와 먼저 결합한 후에 불포화상태인 술어가 소유자와 공지시관계인 논항과 결합하며, 이때 소유자와 공지시 관계인 논항이 대격으로 표현되어 이중대격 구문이 생성된다. 역할구조에서는 이중대격 구문의 경우 대격으로 표현되는 소유자가 수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게 된다. 정보구조에서는 이중대격의 첫 번째 대격이 모체가 되고 두 번째 대격은 초점이 된다.

삼중대격의 경우 정보구조에서 초점이 모체가 되어 또 다른 초점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삼중대격은 혼한 구문은 아니나 이론적으로 순환 규칙(cyclic rule)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소유대상을 관계명사로 본 기능-논항구조에서는 다중대격을 순환 규칙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개의 대격이 사용될 경

우 역할구조에서의 역할 부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거 이중대격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격부여와 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7]의 경우 두 번째 대격은 첫 번째 대격과의 격 일치에 의해 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8]은 소유대상이 동사로 이동하여 소유 대상과 동사가 복합 술어를 형성하고 남은 소유자가 이 복합 술어의 목적어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19]는 이중대격을 소유자가 이동한 결과로 보았으며 첫 번째 대격은 격 표지가 아니라 제2의 주제역으로 초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18][19]와는 달리 [20]은 이중대격 구문을 소유자나 소유대상의 이동의 결과로 보지 않고 동사의 이동의 결과로 분석하였으며 이동한 동사의 흔적이 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격부여와 이동을 기재로 한 이중대격에 대한 분석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문장을 자율적 모듈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여러 구조의 통합적인 결과물로 보는 자율어휘문법을 기반으로 기능-논항구조, 역할구조 그리고 정보구조를 사용하여 이중대격 구문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통사중심주의적 분석과는 달리 의미구조, 정보구조 등을 통해 이중대격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S. Wechsler and Y. S. Lee, "The Domain of Direct Case Assignmen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14, No.3, pp.629-664, 1996.
- [2] S. G. Lee, "On the Telicity of Verbal Noun Object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32, No.3, pp.519-538, 2007.
- [3] S. G. Lee, "On the Semantic Effect of the Korean Morphological Accusative Case Marker *-(D)ul*,"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35, No.4, pp.989-1008, 2010.
- [4] J. B. Kim and P. Sells, "On the Role of the Eventuality in Case Assignment on Adjuncts," *Language and Linguistics*, Vol.11, No.3, pp.625-652, 2010.
- [5] K. Kim, "Semantic Aspects of the Accusative Marker,"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Vol.65, pp.25-46, 2013.
- [6] K. Kim, "An Automodular Account of Pragmatically Motivated Accusatives,"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Vol.19, No.3, pp.211-232, 2014.
- [7] J. M. Sadock, *Autolexical Syntax: A Theory of Parallel Grammatical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8] J. M. Sadock, *The Modular Architecture of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9] J. M. Sadock, "Autolexical Syntax: A Proposal for the Treatment of Noun Incorporation and Similar Phenomena,"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3, No.4, pp.379-439, 1985.
- [10] Y. Ueno, *An Automodular View of English Grammar*, Waseda University Press, 2014.
- [11] R. Jackendoff,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 1990.
- [12] 이선희,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한국문화사, 2004.
- [13] J. H. Yeon, "The Degree of Transitivity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Language Research*, Vol.29, pp.107-136, 1993.
- [14] W. O'Grady, *Category and Case: The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John Benjamins, 1991.
- [15] R. Langacker, "Active Zones," *Proceedings of the T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172-188, 1984.
- [16] 김경환, "이중주격구문의 의미구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6호, pp.338-343, 2020.
- [17] Y. J. Kim, "Inalienable Possession as a Semantic Relationship Underlying Predication: The Case of Multiple-Accusative Construction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pp.445-467, 1989.
- [18] M. Y. Kang, "Possessor Raising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pp.80-88, 1987.
- [19] J. Y. Yoon, "On the Multiple 'ka' and 'lul'"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pp.383-394, 1989.

[20] D. I. Cho, “Inalienable-Type Multiple Acc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2, pp.319-337, 1993.

### 저 자 소 개

김 경 환(Kyunghwan Kim)

정회원



- 1986년 8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4년 12월 : 시카고대학교 언어학과(언어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통사론, 의미론, 형태론